

해외포교 · 신도배가운동 주력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신년기자회견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제 1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과 새해덕담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자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은 대자대비 사상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불교는 전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사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불자들이 앞장서 높고 수성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해는 불자 모두가 손해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속에 화합을 제일로 삼고, 큰 실천에 나서야겠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오는 2011년은 천태종을 증창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탄신 1백주년인 해입니다.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 구성해 올해부터 살과 수행, 업적 등 자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신1백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나 개최, 여덟집 발간, 을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1월 10일 서울 관문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신도배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종단의 내실을 다져 응비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7일 열린 제73차 임시 총의회에서 제 13대 총무원장에 다시 추대된 운덕 스님은 "2011년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대조사님을 현양하기 위한 여러 사업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불자상 제정, 연극 및 음악회공연등을 구상중입니다. 또 구인사 1만2000명 광명당 불사와 금강대학교에 3600평 최첨단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에 사회건설 불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도교육 강화를 통한 신도배가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천태종은 초창기부터 신도관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관음정진을 주경야선(낮에

을 갖고 영통사 낙성식과 학술세미나 개최를 논의합니다. 낙성식후에는 개성관광과 연계해 도리산 초대소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이용한 영통사 성지순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영통사 주변 묘목심기지원, 조선불교도연맹 차량지원 및 구인사 초청등 대북불교교류를 위한 새 사업들을 북한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이 끝나도 북한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

에도 한몽 문화교류의 공간인 '우정의 집'과 문화원및 포교당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외국공관과의 협력도 증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천호동 구강사 한계종을 몽골대사관에 무료로 빌려줘 문화원을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개설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공동체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가 함께 수행하며 종단을 형성해왔습니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착수

가·일에 포교당 건립...비구니 스님 역할 확대

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것을 말함으로 하는 수행풍토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도배가운동은 신도의 숫자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 춘천 울산에도 불교대학을 설립해 신도들의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는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1월 25일경 북경에서 북한과 공식만남

해 민족화해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해외포교에 대한 방안은.

—3년전 첫 해외사찰을 건립한 덴마크 코펜하겐에 현지인 45명과 교민 20여명이 법회에 나오는 등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도 스님을 파견, 부지 3천평을 마련해 평화사를 건립중입니다. 일본 후지산 부근에도 포교당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중정 신년하례회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13일 중정 해초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중정해초 신년 하례회와 함께 종단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운산, 중앙총회의장 인공, 사정원장 법장 스님등 종단 간부스님, 선암사 대중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에 춘광 스님

총무부장 문덕·교무부장 유정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11일 부원장에 춘광 스님(서울 관문사 주지), 총무부장에 문덕 스님(대구 대성사 주지), 교무부장에 유정 스님(충원원흥사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춘광 스님



문덕 스님



유정 스님

부원장 춘광 스님은 1971년 3월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89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다. 81년부터 대성사 성통사 삼광사 주지, 8~11대 총의회 의원, 총무원 규정부장, 교무부장등 종단의 주요소임을 두루 거쳤다. 현재 재단법인 천태종·금강불교학원·천태종복지재단 이사, 서초구 사암연합회장등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무량종 중앙총회 개최

중앙신도회 결성키로

무량종(총무원장 해안)은 지난 12월 24일 지리산 칠보사에서 중앙총회를 열고 2005년도 종단 예산 책정 등 신년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무량종은 신년사업으로 신도 합동수계법회, 남북통일 기원법회 개최, 중앙신도회 결성, 고양시 무량선무도원 개원 및 국제 선무도회 교류시범행사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총무원장에 해안 스님이 유임되고 감찰원장 해운, 교육원장 보산, 포교원장 중성, 호법원장 보운, 문화원장 오현,

총회회장 보경, 사서실장 보인, 총무부장 성우, 재무부장 법공 스님이 임명됐다.

강유신 기자

종단협, 소개책자 만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소개책자를 만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월 1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 개최, 남아시아 성금 접수, 가을 한중일대회 개최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사회의식 높이기 힘쓸터



인터뷰 김유혁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1995년부터 천태종의 중앙신도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유혁(금강대 총장) 회장은 "올해는 종단과 함께 신도배가운동에 주력하겠다"며 "신도들의 의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중앙간부연수시 특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의 산하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천태종에는 160여개의 직영사찰 신도회가 있습니다. 신도회 간부들이 총의회의 거

의 결판을 차지해 종단운영을 함께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별도의 활동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사찰의 신도회 회장단, 전직 신도회 회장단이 1

천명에 이르는데요. 종단의 주요행사 때마다 구인사 신도회장단 숙소에 모여 종단의 발전에 긴요하게 필요한 점을 토론하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의 올해 주요사업은.

—1년에 2차례 열리는 전국간부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사회전반의 이해를 돕는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종단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신도배가운동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계정세에 따른 도덕문제가 왜 중요하고 일반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국과 도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대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승속이 원용하는 모습은 천태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종단은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모든

로 일반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고자 노력합니다. 총무원만 하더라도 신도들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는 공유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신도들의 힘이 종단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사찰의 운영은 모두 신도회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도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재정도 관리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태종이 종단이나 사찰 할 것 없이 일사분란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조직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올해는 닦의 해입니다. 새벽에 어김없이 시간을 알려주는 닭처럼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회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찰 속에 심화시켰으면 합니다.

단양=김원우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고집내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한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중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각 9,000원

해광(海光)스님 불교비전연구소서 「불기배의」 / 실용역학서 「운명비결」 / 저서 최초의 소설적 불교교과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 「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넷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명비결 전문가 과정 신청 접수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서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속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